2017.1.2 398호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무료 와이파이	뉴욕
산업·경제	2	농업·관광·방재 등 여러 분야서 드론 활용 추진	도쿄
사회·복지	4	시내 중심가에 '24시간 작업공간' 문 연다	파리
행재정·교육	6	센강변 리노베이션 등 시민참여 프로젝트 시행	파리
도시교통	8	도난방지 시스템 갖춘 자전거 주차시설 시범 설치	바르셀로나
	10	'연간 2,140억 원 경제효과' 차량공유제 확대 시행	시드니
도시계획·주택	12	21세기 라이프스타일 반영해 공동주택법 개정	뉴사우스웨일즈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무료 와이파이

민간 통신회사와 협력 …태블릿PC 5,000대 제공

미국 뉴욕市 / 사회·복지

○ 미국 뉴욕市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커넥트홈(ConnectHome)'정책과 발맞추어 통신회사 T-모바일과 협약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5,000대의 태블릿PC와 초고속 무선인터넷(Wi-Fi)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 배경

- 뉴욕시 일반 가정의 20%는 집에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고, 빈곤층 가정의 35%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
-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의 상당부분이 태블릿PC와 와이파이를 활용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에 와이파이와 태블릿PC보급이 필요

– 주요 내용

- 와이파이 제공
  - 지금까지 5개 구 공공 도서관 및 저소득층 가구 7천 세대 이상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
  - 2025년까지 도시 전역에서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충
- 태블릿PC 제공
  - 뉴욕시는 2017년 1월부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준소득 이하의 가구에 159달러(19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5,000대를 무상 제공 예정
  - 태블릿PC는 뉴욕시 공공도서관 앱, 오픈북(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료 전자책 앱), 초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앱 등이 설치된 상태로 제공
  - 또한, 태블릿PC의 사용방법 및 디지털기기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제공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7/15/fact-sheet-connecthome-coming-together-ensure-digital-opportunity-all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956-16/mayor-de-blasio-hud-secretary-castro-t-mobile-5-000-families-bronx-public-housing/#/0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산업·경제

농업·관광·방재 등 여러 분야서 드론 활용 추진

일본 도쿄都 / 산업·경제

○ 일본 도쿄都 아키루노(あきる野)市는 도시 관광, 산업,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2016년 3월 주식회사 스카이시카(スカイシーカー)와 '드론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활용 및 추진을 위한 합의서(ドローンの安全かつ有効な活用推進に向けた合意)'를 체결

– 개요

- 드론 활용 전문회사 스카이시카는 드론 제작사 DJI Japan과 협력 관계에 있으며, 현재 아키루노시와 민관합동으로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 중

– 주요 내용

- 방재 분야
  - 아키루노시는 2016년 11월 실시한 종합 방재훈련에서 물자 운반용 드론으로 구호물자(물, 영양보충제, 통신기기)를 수송하는 시범 훈련을 시행
  - 훈련에 투입된 드론은 최대 4Kg의 화물을 적재하고 완전 자율비행으로 목적지까지 물자를 수송하고 출발지로 귀환이 가능

드론 'Matrice 600'이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모습

- 농업 분야
  - ‘드론을 활용한 생태현황 파악 및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 연구’를 2017년부터 3년간 실시할 예정
  - 야생조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키루노시에서 제안하고 일본 농림수산성이 채택한 연구

- 산업과 관광분야
  -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2016년 12월에 개최
  -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FPV 드론 레이스(First Person View, 파일럿이 드론 카메라의 시점에서 펼치는 레이스) 월드 챔피언십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 드론 관련 인재 양성
  - 아키루노시에서 드론 파일럿 육성 프로그램 ‘DJI CAMP’ 운영
  - 아키루노시는 2013년 폐교한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스카이시카가 교육을 담당
  -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 강습과 조종법이며, 교육을 이수한 파일럿은 DJI사의 드론 비행 플랫폼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증 받음.

http://www.drone.jp/news/20161128173204.html
http://www.drone.jp/news/20161115190911.html
https://www.dronetimes.jp/articles/573
https://www.dronetimes.jp/articles/603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1328095/

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

사회·복지

시내 중심가에 '24시간 작업공간' 문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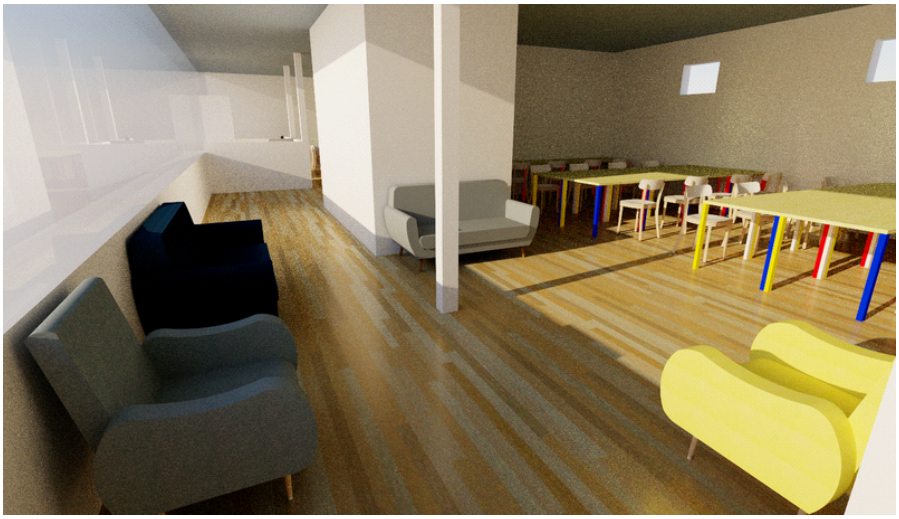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프랑스 파리市는 시민들이 24시간 작업, 공부, 휴식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유료공간 '페르마넝스(permanence)'를 시민제안 프로젝트로 추진해 2017년 1월 파리 중심부인 5지구에 첫 번째 공간을 개장할 예정

- 배경
  - 파리시에는 시민과 학생들이 24시간 공부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와이파이가 완전히 보급되지 않아 이와 같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 주요 내용
  - 주요 서비스
    - 고속 와이파이, 복사기, 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는 작업 및 회의 공간 제공
    - 음료와 스낵 제공으로 작업 중 휴식 가능
  - 이용 개요
    - 인원 : 한 공간에 50~60명 수용(1호점)
    - 시간 : 주중에는 24시간, 주말은 새벽시간을 제외하고 운영
    - 요금 : 오후 2~6시는 시간당 1.5유로(2천 원), 그 외에는 시간당 1유로(1,300원), 월 정액제 80유로(10만 원), 학생은 기존 요금의 50% 할인

- 기타 사항
  - 시민제안 프로젝트이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서비스를 강화
  - 크라우드 펀딩 활용 내역
    - 5,500유로(600만 원) : 장학금 성격으로 학생 할인 지원에 사용
    - 4,000유로(500만 원) : 휴식 공간 마련에 사용



2017년 1월 2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24시간 작업공간 페르마넝스

http://www.paris.fr/actualites/partenariat-pour-un-gouvernement-ouvert-les-5-engagements-de-la-ville-de-paris-4363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행재정·교육

센강변 리노베이션 등 시민참여 프로젝트 시행

프랑스 파리市 / 행재정·교육

○ 프랑스 파리市는 시민이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파리 시와 각 구가 예산과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여 실현시켜주는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시행

- 배경
  - 파리시가 프랑스 정부와 맺은 '열린 정부 협약(PGO, Partenariat pour un Gouvernement Ouvert)'의 하나로 추진

- 주요 내용
  - 프로젝트 제안
    - 국적과 관계없이 파리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해와 관계된 프로젝트
      - 파리시나 구가 관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 유지비가 투자비보다 많지 않을 것

  - 프로젝트 선정
    - 기술평가와 예산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위원회에서 통과된 프로젝트를 시민 혹은 구민 투표로 선정

  - 프로젝트 실행
    - 선정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한 의사결정은 집단으로 내림.
    - 파리시는 선정된 프로젝트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시민들을 연결시켜주고 작업공간 등을 제공
    - 시 차원의 프로젝트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구와 관련된 경우는 구와 분담

- 사업현황
  - 2014~2015년 결과
    - 2014년 : 9개의 프로젝트에 1,770만 유로(230억 원)를 지원
    - 2015년 : 8개의 시 프로젝트와 180개의 구 프로젝트에 6,770만 유로(880억 원)를 지원
  - 사례
    - 시 프로젝트 : 시립 박물관 전시 예술품 구매, 센강변 리노베이션 등
    - 구 프로젝트 : 구 광장 개조, 초등학교 텃밭 조성 등
    - 실현 불가 : 시 산하기관이 아닌 지하철 공사나 국립박물관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 기타 사항
  - 시민참여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파리시의 연계 정책
    - 관련 예산 확보 : 2014~2020년까지 5억 유로(6,500억 원) 책정
    - '파리 시민카드(Carte Citoyenne)' 발급과 '파리 시민 아틀리에(Ateliers citoyens de Paris)' 설립으로 시민들의 손쉬운 시정 참여 유도
    - 오픈 데이터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문제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프로그램 '우리 동네에서(DansMaRue)' 제작
    - 시민과 행정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정책 혁신 연구소 설립 예정

http://www.paris.fr/actualites/partenariat-pour-un-gouvernement-ouvert-les-5-engagements-de-la-ville-de-paris-4363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도시교통

도난방지 시스템 갖춘 자전거 주차시설 시범 설치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교통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도난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자전거 주차장을 시내 14곳에 시범 설치하여 향후 1년간 150대의 자전거를 수용할 예정

- 개요
  - ‘바르셀로나 열린 도전(BCN Open Challenge)’ 대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자전거 도난의 최소화’에 관한 정책
  - 카탈루냐 지역 세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바데비케바르셀로나(VadebikeBCN)에서 제작

- 주요 내용
  - Easy, Smart, Safe를 모토로 제작
    - Easy : 30초 이내에 모든 과정 완료
    - Smart : 스마트기기로 손쉽게 사용 가능
    - Safe : 쉽게 절단되지 않는 세 개의 잠금장치 설치
  - 서비스 이용방법
    -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 후 비접촉식 카드 발급
    - 웹에서 빈자리를 확인 후 전화,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예약
    - 최대 72시간 주차 가능
  - 이용료
    - 연간 15유로(1만9천 원), 300유로(38만 원)의 자전거 보험 포함
    - 시간당 이용료는 0.02~0.47유로(25~600원) 사이

- 기타 사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계 정책 추진

- 안전이 강화된 자전거 주차시설의 대량 증축
- 외진 자전거 주차시설에 감시 인원 배치
- 지하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시설 제공

- 해당 자전거 주차시설은 손쉬운 사용법으로 유럽 등지에서 특허를 획득

사진 1. 자전거 도난방지 주차시설
사진 2. 이용자가 자전거를 헬멧과 함께 보관하는 모습
사진 3. 절단이 어렵도록 특수 제작된 삼중 잠금장치를 이용하는 모습

http://eldigital.barcelona.cat/es/nuevos-aparcamientos-seguros-para-bicicletas_442698.html
https://www.vadebikebcn.com/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연간 2,140억 원 경제효과’ 차량공유제 확대 시행

호주 시드니市 / 도시교통

○ 호주 시드니市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량공유제(car sharing)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자,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한 초안을 발표

– 개요

- 차량공유제는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Sustainable Sydney 2030)’의 필수 요소로 선정되어 2007년에 시범 실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
- 유의미한 이용률 증가와 경제효과 발생이 확인되어 확대 시행 결정

– 현행 차량 공유제 개요

- 민간이 아닌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차량공유제
- 시는 실행 능력이 있는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전용 주차장 제공 및 정책 지원
- 현재 ‘고겟(GoGet)’과 ‘허츠(Hertz)’의 두 개 사가 운영허가를 받아 시행 중
- 신청 절차 및 요금
  -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차량 인도 및 반납 장소를 지정 가능
  - 요금은 차종과 이용 시간 및 거리에 따라 다르며, 시간당 6~13호주 달러(6천~1만3천 원)의 기본요금에 거리(Km)당 추가요금이 부과
- 연간 2억 1천 4백만 호주달러(2,140억 원)의 경제효과 발생 추산
  - 대부분 주민과 기업의 차량 구매 연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
  - 이 외에도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 감소, 시민 건강 증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부가효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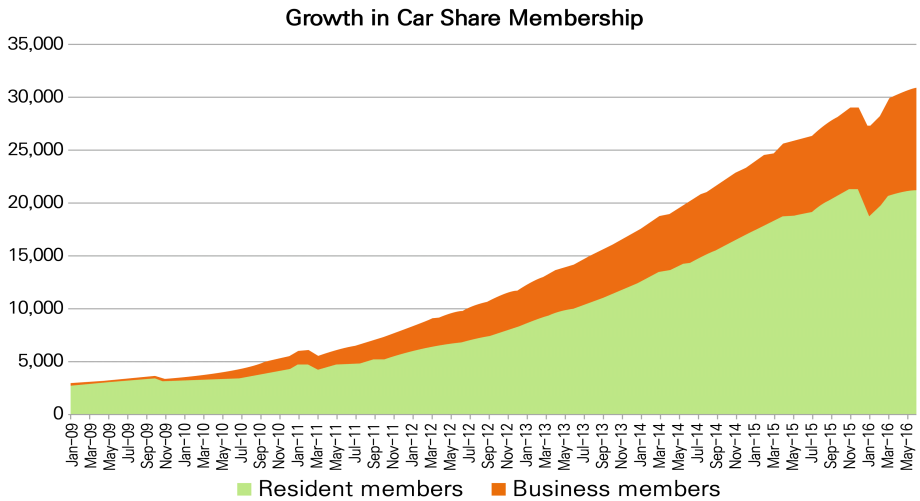
– 개정 초안 중요 내용

- 운영자 간의 균형 경쟁
  -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편중될 경우 시는 주차장을 재할당할 수 있음.
- 허가비용 감소
  - 차량당 연간 225호주달러(19만6천 원)에서 112호주달러(9만8천 원)로 감소
- 신규 전용주차장 확충
  - 기존의 지역별 이용 데이터를 기초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신설
- 3년마다 성과 검토 및 신규 정책 마련

- 운영 업체 자격요건 및 의무 강화
  - 24시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차량 및 네트워크 보유
  - 일반 승용차를 공유차량으로 사용 금지 및 배기가스 기준 강화

– 정책 목표

-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 공유차량 1대를 위한 주차 공간은 10~12대의 차량을 대체하는 효과
-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차량공유제 확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소 목표 달성
- 도시 경제지지
  -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심 내 기업들의 경제력 강화에 도움
- 교통체증 완화
  -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차량운행 유도 효과로 교통체증 감소에 도움
- 자가용 소유 증가율 완화



차량공유제 가입자 증가 추이

http://www.sydneymedia.com.au/sydneysiders-give-car-sharing-policy-the-green-light/

http://www.cityofsydney.nsw.gov.au/live/residents/car-sharing

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2/122502/CarShareEconomicAppraisalFINALREPORT.pdf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

도시계획·주택

21세기 라이프스타일 반영해 공동주택법 개정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도시계획·주택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21세기 공동주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90여 개 조항의 공동주택법을 개정

– 배경
  - 호주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공동주택 소유자의 90%는 단독주택에 따로 살고 거주민 대부분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거주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
  -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호주에서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2016년 현재 20%의 주민이 거주하며 2040년에는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법 개정 방향
  - '스트라타(Strata, 공동주택 주민자치조합)' 매니저의 권한 확대
  - 주택 소유주 및 거주민의 적극적인 스트라타 회의 참여 유도
  - 스트라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현대적 기술의 도입
  - 법령의 간소화 및 명확성 강화

– 주요 개정 사항
  - 과밀거주 금지
    - 거주 인원의 최대한도 설정으로 '닭장(battery cage)'화 방지
  - 단지 내 주차단속
    - 거주자의 동의 없이 주차된 차량의 구청 단속 허용
  -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 잘못된 건축 관행 근절 및 신규주택 구매자 보호를 위해 개발 업체는 하자 보수비용으로 총 주택가치의 2%를 보증금으로 예치

- 애완동물
  -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이를 금지할 때 합당한 사유로 스트라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흡연
  - 주민 행위 규범에 흡연의 위해성 명시
  - 소유주는 관리위원회에 흡연 단속 권한 부여 가능

- 집단 판매(Collective Sales)
  -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개발 촉진 장려 목적
  - 기존에는 소유주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으나, 75% 이상 찬성으로 가능

- 개조 및 보수
  - 개보수 때마다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던 방식에서, 정도에 따른 3단계 허가 체계로 변경

- 대리 투표(Proxy Voting)
  - 소수인원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대리투표 제한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a-new-beginning-for-strata-living/

http://stratalaws.nsw.gov.au/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